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 특성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Role of the Primate City in a Metropolitan Region in Korea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연구위원(제1저자)
정현욱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연구원

※ 주요단어: 대도시권, 기능적 연계성, 중심도시, 주변도시, 도시성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III. 자료 및 접근방법
 - 1. 연구대상지역 및 자료
 - 2. 접근방법 및 모형
- IV.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 및 권역별 특성 비교
 - 1.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
 - 2. 권역별 공간 특성 비교
- V. 결론

※ 본 논문은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에서 주최한 동남권 경제협력을 위한 대도시 광역혁신체제와 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I. 서론

기존의 단일 도심의 도시공간구조가 인구 및 고용의 교외화에 따라 다핵 도시공간구조로 진행되고 나아가 인접한 주변도시와의 연담화에 따라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화로 진행되는 것이 도시의 일반적인 성장과정이라 볼 수 있다.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등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이러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으며,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 기능적 연계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도시의 교외화 및 광역화는 일반적으로 기존 도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광역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인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나 정치·행정적으로는 이질적인 공간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이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원의 중복투자 및 자원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환경오염시설, 광역대중교통시설, 기피토지이용(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의 입지 등의 경우 지방정부 간의 협력 및 상위정부의 참여가 요구된다.

한편, 도시의 광역화, 대도시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광역권 혹은 대도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 광역권의 공간범위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여 일컫는 동남권 혹은 부산광역시권(부산경남권)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부산을 중심도시로 하여 인접하는 주요 도시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묶는 것으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설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광역권 설정 기준으

로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주변지역의 도시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측정방법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신윤철·이종상, 2003). 특히 연계성의 측정이 주변지역의 관점(주변지역의 중심도시에 대한 의존도)에서만 파악되고, 중심도시의 관점, 이들 양자 간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권 설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능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대도시 광역도시권을 설정하고 권역별 특징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기능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인 서울, 대구, 부산·울산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부산·울산권의 경우 부산과 울산의 2개의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을 중심도시로 볼 것인가, 혹은 울산을 중심도시로 볼 것인가에 따른 권역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울산을 각각 중심도시로 하여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광역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광역도시권 설정을 위한 기능적 연계성 측정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둘째, 수도권, 비수도권의 광역도시권의 공간적 특성을 비교하며 셋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의 초광역화 현상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광역권은 공간적인 단위로서 2개 이상의 공간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단위 간에는 기능적 연계성이나 사회-경제 및 자연적 특성의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 혹은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도시와

주변농촌지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광역권 및 대도시권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도시가 존재해야 하며,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경우 도시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김용웅, 1999). 이 때 일정기준 이상의 연계성과 도시성이 성립되면 주변지역은 교외지역(Surburbs)¹⁾으로 정의된다(권용우, 2001).

우리나라에서 광역권설정의 공식적인 기준²⁾은 없으나, 광역권설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중심도시와의 연계성(김호철·김철수, 2004; 권용우, 2001; 권창기·정현욱, 2005; 신윤철·이종상, 2003; 송중홍, 1995; 권용식, 1998; 김재익·정현욱·여창환, 2005), 주변도시의 도시성(김호철·김철수, 2004; 권용우, 2001; 류제권, 2001; 신윤철·이종상, 2003; 송중홍, 1995), 개발제한구역과의 관련성(김호철·김철수, 2004; 권용우, 2001)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부가적으로 중심도시와의 연결성을 제시한다.

김호철·김철수(2004)은 광역권의 설정기준으로 중심지역과의 연계성, 주변지역의 도시성, 개발제한구역과의 관련성, 중심도시와의 연결성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연계성, 접근성, 도시성 지표 중 1개 이상 만족하는 시·군과 중심도시와 연결한 시·군을 대상을 설정하였다. 권용우(2001)는 연계성과 도시성을 이용하여 수도권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였다. 연계성에 있어서는 통근율, 역통근율, 통근율+

역통근율을 지표로 하여 이 중 1개 이상을 만족할 때 권역으로 설정되고, 도시성에 있어서는 비농업 취업인구 비율, 전업농가 비율, 농가비율,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다. 또한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시·군별로 구분하여 광역수도권에 포함시켰다.

진경구(2000)는 시장모형에 대한 중심지 이론과 중심도시와의 연계성과 주변지역의 교외화, 도시화 정도에 대한 교외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광역도시권 설정방법을 모색하고 각각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권창기·정현욱(2005)는 울산광역시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통근자료를 이용하여 울산광역권의 기능적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울산시와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 경주, 양산지역으로 분석되어 이들 지역이 울산대도시권으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류제권(2001)은 광주광역도시권 설정에 있어 도시적 특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도시적 특성과 연계성이 중첩된 곳을 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도시적 특성 2개 이상, 연계성 1개 이상 또는 도시적 특성 1개 이상, 연계성 2개 이상인 경우 광역권으로 설정하였다. 신윤철·이종상(2003)은 광역도시권의 설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주변지역이 광역도시권에 포함될 특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의 계보적으로 광역도시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

1) 교외지역은 중심도시의 일부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지역의 개념인데 반해, 주변지역은 위치상 중심도시와 연결된 모든 지역을 일컫는 위치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권용우, 2001).
 2) 제도적인 측면에서 광역도시계획의 광역계획권의 설정기준으로 주변지역설정을 위해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주변지역 자체의 도시적 특성,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중심도시와의 연결성 등 4개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고 언급한다. 특히 연계성과 도시성은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권 설정의 기준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지역간 연계성 및 도시성을 이용하여 권역을 설정하였다. 지역 간 연계성의 경우 통근통행 자료를 이용하였고, 도시성의 경우 농가인구비, 경지면적비, 인구이동비율, 사업체 밀도 등 8개 지표의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하고 그 점수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였다. 이외 송종홍(1995), 권용식(1998) 등의 대도시권 설정연구에서도 주변지역은 중심도시와의 연계성과 주변 지역 자체의 도시적 특성을 설정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신윤철·이종상(2003)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연계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면, 광역권 설정의 해외사례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도시통계지역(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³⁾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카운티(counties)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심도시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가 최소한 하나가 있어야 하고, 도시화된 지역의 총 인구는 10만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주변지역 카운티는 적어도 50% 이상 도시화지역을 설정 외 일정 인구규모가 중심 카운티에 취업하거나 일정한 취업인구가 중심 카운티에

거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표준대도시권(SMLA: Standard Metropolitan Labour Areas)을 설정하고 있다. SMLA의 중심도시 설정기준은 중심도시의 고용 밀도 2.12/ha 이상, 중심도시의 고용규모 2만 이상, 중심도시를 구성하는 자치구들이 지리적으로 연결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변지역은 취업인구의 15% 이상이 중심도시에 취업하거나, 자치구들이 상호연접 또는 중심도시에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SMLA를 구성하는 핵심부와 주변부의 상주 인구를 합하여 7만 명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김인·권용우, 1998).

일본은 기능적 도시권(FUR: Functional Urban Region)을 설정하고 있다. 중심도시 인구는 10만 명 이상, 주·야간 인구비가 1 이상, 비농가구비중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비농가구비가 75% 이상, 중심도시로의 통근자수가 500명 이상, 취업인구 중 중심도시로의 통근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구자문 외, 2003).

이상과 같이 외국의 대도시권 혹은 광역도시권의 설정기준은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 및 도시행정체계 등에 의해 차이가 있으며,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광역도시권 설정기준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관점에서 보면, 중심도시의 경우 인구규모, 주·야간 인구비, 인구 및 고용밀도 등의 지표, 그리고 주변지역의 경우 2, 3차 부문의 취업구성비, 중심도시로의 유출입 취업 및 통근비 등 소위 중심도시이용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용된다.

3)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구(Standard Metropolitan Area, SMSA)는 1960년, 1970년, 1980년 센서스에 사용되었고, 1910년, 1920년, 1930년, 1940년에는 Metropolitan District를, 1950년에는 Standard Metropolitan Area(SMA)를 사용했다. 그리고 1990년에 이르러 광역도시권(Metropolitan Area, MA)이라는 통합적 규정이 만들어졌다(권용우, 2001).

한편, 연계성 기준에 의한 대도시권의 설정에 있어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 연구가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의존도라는 주변지역의 관점에서만 연계성을 고려한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심법, 주변법, 매개법의 3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중심도시 관점(중심법), 주변도시 관점(주변법),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매개법)를 동시에 파악하여 광역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서태성, 1998)⁴⁾.

따라서 본 연구의 광역권 설정기준은 기존연구(신윤철·이종상, 2003)에서 제시한 도시성지표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연계성지표만을 사용하고 자 하며, 연계성도 기존 연구처럼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의존도라는 주변지역의 관점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중심도시 관점,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가 기존의 광역권 설정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첫째, 기능적 연계성을 중심도시 관점(중심법), 주변도시 관점(주변법),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매개법) 등의 측면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광역권 설정에 적용한다.

둘째, 기존의 광역권 설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을 설정함에 따라 광역도시권별(수도권, 비수도권)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부산·울산권의 경우처럼 중심도시가 2개

일 경우 어느 한 도시만을 중심도시로 한정하는 것이 두 도시를 중심도시로 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광역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들 수 있다.

III. 자료 및 접근방법

1. 연구대상지역 및 자료

광역도시권 설정의 연구대상지역은 부산·울산권, 대구권, 수도권으로 하였다. 이들 지역이 선정된 이유는 첫째, 수도권 및 비수도권(부산·울산권, 대구권)의 광역도시권의 공간적 특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두 개의 중심도시가 인접해 있을 경우, 광역권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부산·울산권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두 개의 중심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느 도시를 중심도시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광역권의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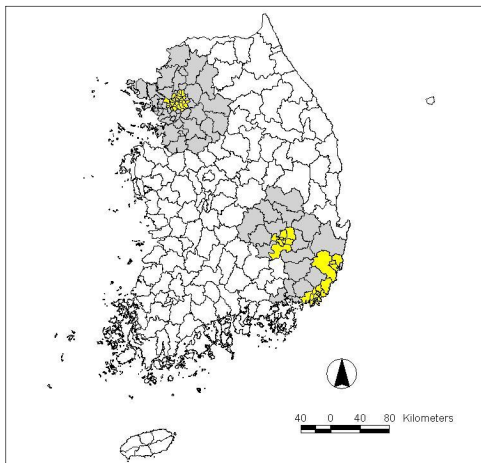
한편 부산·울산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도시 및 교통관련 상위 계획에서 부산과 울산을 동일 권역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대 광역권 개발권역의 부산·경남권에 울산을 포함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의 대도시 광역교통5개년계획 역시 부산·울산권에서 울산을 부산권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권역설정은 부산을 중심도시로 하여

4) 중심법은 중심도시의 시각에서 중심도시의 제 기능이 주변의 어느 범위까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고, 주변법은 주변도시의 관점에서 주변지역이 중심도시에 대해 어느 정도 의존하고,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방법, 그리고 매개법은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통신과의 움직임을 통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이다(서태성, 1998).

<표 1> 연구대상지역

권역	대상지역(중심도시 반경 50km)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35개 시·군)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경주시, 청도군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주시, 경산시, 김천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청도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그림 1> 연구대상지역



주변지역(울산포함)을 권역에 포함한 것으로 광역시인 울산시를 중심도시로 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울산은 행정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울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인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의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그리고 경북의 경주시, 청도

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구권의 경우 대구광역시, 경주시, 경산시, 김천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청도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울산권 및 대구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은 대구, 부산, 울산 등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50km 내에 포함되는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심도시를 반경으로 50km로 설정한 근거는 광역도시계획의 광역계획권 설정기준에 따랐다 (<그림 1>, <표 1> 참조).

그리고 광역도시권 설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2% 표본조사 자료인 통근통행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근통행자료는 기능적 연계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변수다.

2. 접근방법 및 모형

1)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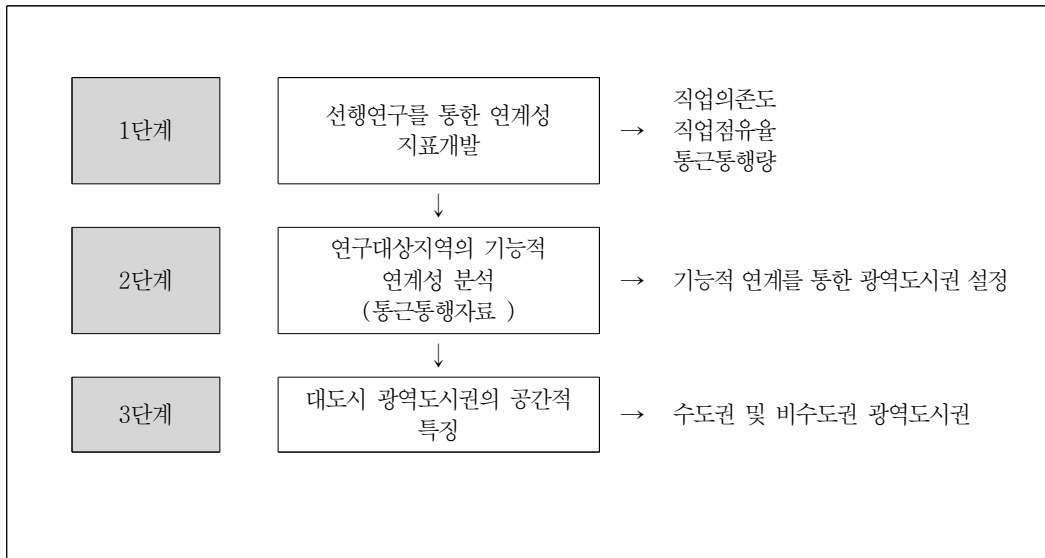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연구대상지역의 중심도시(서울, 대구, 부산·울산)와 주변지역 간 기능적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계성 지표를 개발한다.

연계성은 중심도시관점, 주변지역관점, 양자

<표 2> 광역도시권 설정기준 및 방법

연계성 지표	설정기준	설정방법
의존도	주변지역의 중심도시로의 직업의존도 5% 이상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점유율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 5% 이상	
통근통행량 비중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통근통행량 비중 5% 이상	

<그림 2> 연구의 접근방법



간의 관계(매개법)를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직업의존도(JDR: Job Dependency Ratio Index),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JOR: Job Occupancy Ratio Index), 그리고 도시 간 통근통행량(VI: Volume of exchange Index)의 3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 둘째, 연계성 지표를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대도시 광역도시권을 설정한다. 광역도시권 설정방법은 의존도(JDR), 점유율(JOR), 통근통행량(VI) 각 지표는 모두 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적어도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도록 하였다(<표 2> 참조). 5% 이상의 적용근거는 선행연구(권용우, 2001; 최진호·이종열, 1984; 이태일, 1982) 및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광역권 설정 사례를 참조하였다. 셋째, 광역권 설정 결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도시권의 공간적 특성의 파악이다.

2) 모형⁵⁾

다음은 연구대상지역의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기능적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계성 지표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1) 직업의존도(JDR)

직업의존도는 주변지역 관점에서 살펴본 주변법으로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총취업자(총출발자) 중 중심도시로 출근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직업의존도는 다음과 같은 <식 1>로 측정된다.

$$JDR_i^t = W_{ij}^t / \sum W_i^t \quad \text{<식 1>}$$

JDR_i^t : t시점 i 지역의 직업의존도

W_{ij}^t : t시점 i 지역에서 j지역(중심도시)으로 통근하는 통근자수

$\sum W_i^t$: t시점 i 지역의 총취업자수(출발자수)

직업의존도는 통근율로 설명되는데, 높은 직업의존도는 주변지역의 거주하는 취업자중 중심도시로 통근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의존도 지표는 MSA 그리고 SMSA과 같이 도시의 기능적 연관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직업의존도만으로 지역 간 공간적 연관성을 파악하기도 한다.

(2) 직업점유율(JOR)

직업점유율은 중심도시 관점에서 살펴본 중심법으로서 주변지역의 총일자리수(도착자수) 중 중심도시 거주자들이 점유하는 주변지역의 직업수로 파악된다. 직업점유율은 <식 2>로 파악된다.

$$JOR_i^t = E_{ji}^t / \sum E_i^t \quad \text{<식 2>}$$

JOR_i^t : t시점 i 지역의 직업점유율

E_{ji}^t : t시점 j지역(중심도시)에서 i지역(주변지역)으로 통근자수

$\sum E_i^t$: t시점 i 지역의 총일자리수(도착자수)

이 지표는 주변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손실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 지표 역시 지역 간 기능적 연관성을 측정하는 주요지표가 된다.

(3) 통근량의 비중(VI)

직업의존도와 직업점유율은 주변지역의 총유출, 중심도시로의 총유입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 총통근수와 같은 양(Volume)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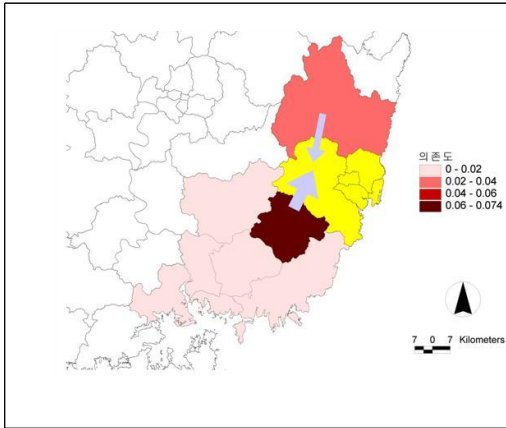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통근량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통근량은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수와 주변지역에서 중심도시로 유입되는 통근수의 합계로 계산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개법에 해당한다.

통근량(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연구 대상지역의 총 통근수에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 상호통근수를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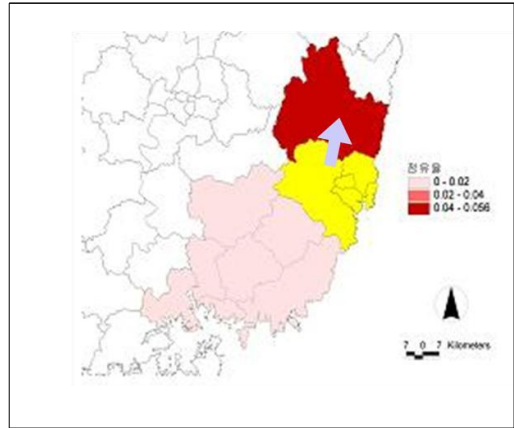
$$VI_i^t = (W_{ij}^t + E_{ji}^t) / (\sum W_{ij}^t + \sum E_{ji}^t) \quad \text{<식 3>}$$

5) 본 연구의 모형은 김계익·정현욱·여창환(2005)의 모형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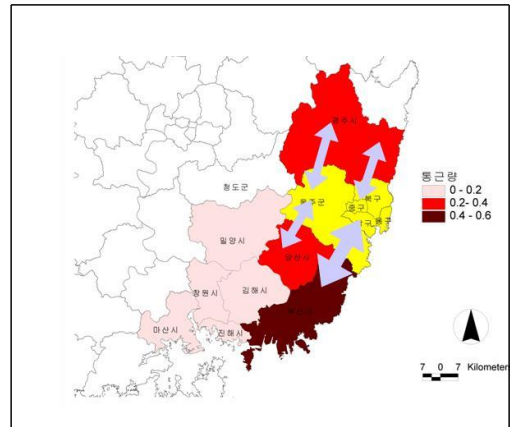
<그림 3> 주변지역의 울산 직업의존도(JDR)



<그림 4> 울산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JOR)



<그림 5> 울산시와 주변지역 간 통근량(V)



IV.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 및 권역별 특성 비교

1.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

1) 부산·울산광역도시권 설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산·울산권은 중심도시가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두 개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두 도시를 각각 중심도시로 파악하여 부산·울산광역권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울산광역시를 중심도시로 보고,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분석한 결과 먼저, 주변지역의 총취업자수(총출발자수) 중 중심도시로 가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직업의존도(JDR)는 양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부산 기장군, 경주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변지역의 총일자리수(총도착자수) 중 중심도시에서 오는 비중을 나타내는 울산시의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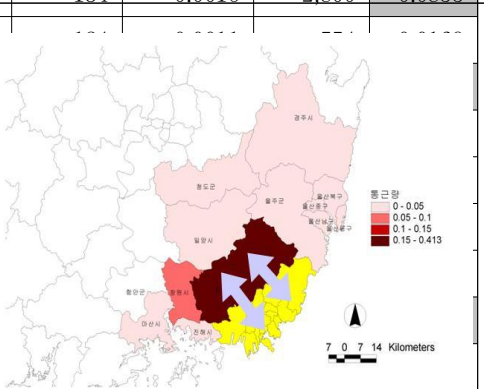
직업점유율(JOR)은 경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타 지역은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서 울산시로, 울산시에서 주변지역으로 가는 총통근량을 보면, 경주가 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산(19%), 부산시의 해운대구(8.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에서 주변지역으로의 통근은 경주시(5,400명)가 가장 많고,

<표 3> 울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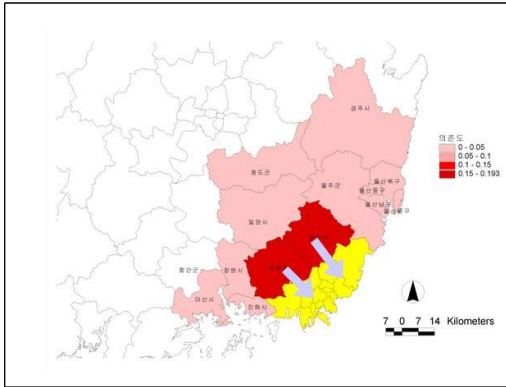
지역	총유출 (a)	주변에서 울산으로 (b)	의존도 (JDR =b/a)	총유입 (c)	울산에서 주변지역 으로 (d)	점유율 (JOR =d/c)	통근합 (e=b+d)	통근량 비중
부산중구	19,851	143	0.0072	70,263	230	0.0033	373	0.0114
부산서구	48,880	255	0.0052	49,159	104	0.0021	359	0.0110
부산동구	40,013	267	0.0067	61,378	167	0.0027	434	0.0133
부산영도구	57,143	421	0.0074	44,373	94	0.0021	515	0.0157
부산진구	139,829	973	0.0070	162,596	300	0.0018	1,273	0.0389
부산동래구	94,075	1,706	0.0181	80,686	378	0.0047	2,084	0.0636
부산남구	95,604	763	0.0080	75,610	145	0.0019	908	0.0277
부산북구	98,773	973	0.0099	60,525	133	0.0022	1,106	0.0338
해운대구	128,223	2,666	0.0208	83,019	134	0.0016	2,800	0.0855
사하구	128,350	420	0.0033	117,984	134	0.0011	554	0.0043
금정구	91,768	2,368	0.0258	74,965	134	0.0018	2,502	0.0334
강서구	22,456	32	0.0014	41,029	134	0.0033	166	0.0040
연제구	69,795	1,017	0.0146	57,075	134	0.0023	1,151	0.0201
수영구	53,212	583	0.0110	34,140	134	0.0039	717	0.0210
사상구	100,401	463	0.0046	115,375	134	0.0012	597	0.0051
기장군	25,273	1,346	0.0533	29,984	134	0.0045	1,480	0.0493
부산 전체	1,213,646	14,396	0.0119	1,158,161	134	0.0116	14,530	0.0125
경주시	93,048	2,720	0.0292	96,015	5,349	0.0557	8,069	0.2464
청도군	22,235	0	0.0000	22,378	0	0.0000	0	0.0000
창원시	169,704	208	0.0012	182,407	114	0.0006	322	0.0098
진해시	31,888	20	0.0006	37,506	21	0.0006	41	0.0013
김해시	119,961	331	0.0028	135,549	113	0.0008	444	0.0136
밀양시	48,258	76	0.0016	48,472	82	0.0017	158	0.0048
양산시	67,472	5,006	0.0742	82,884	1,477	0.0178	6,483	0.1979
기타 전체	552,566	8,361	0.0151	605,211	7,156	0.0118	15,517	0.4737
합계	1,766,212	22,757	0.0129	1,763,372	9,997	0.0057	32,754	1.0000

<그림 8> 부산과 주변지역 간 통근량(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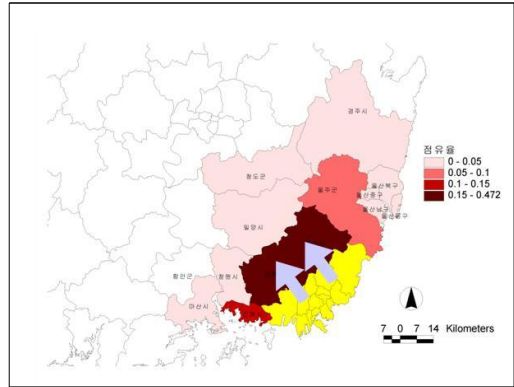


주: 5% 이상을 음영으로 처리하였음.
 자료: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조사(통근통행자료).

<그림 6> 주변지역의 부산 직업의존도(JDR)



<그림 7> 부산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JOR)



다음으로 양산시(1,500명), 부산 기장군(570명)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비해 주변지역에서 울산으로의 통근은 양산시(5,000명), 경주시(2,700명), 부산시(해운대구 2,600명)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지표를 근거로 한 울산광역시와 주변 지역 간 기능적 연관성이 높은 지역은 경주, 양산, 그리고 부산 일부지역(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에서 <그림 5> 및 <표 3>은 울산시와 주변지역의 기능적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존도, 점유율, 통근량을 나타낸 그림과 표다.

한편, 부산광역시를 중심도시로 보고,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주변지역의 총취업자수(총출발자수) 중 중심도시로 가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변지역의 중심도시에 대한 직업 의존도(JDR)는 양산(19%)과 김해(16%)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주변지역의 총일자리수(총도착자수) 중 중심도시에서 오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산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JOR)도 역시 양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김해, 진해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양산과 김해가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통근량의 경우 부산-양산, 부산-김해 간의 통근량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부산에서 주변지역으로 통근은 김해(3만 6,000명), 양산(3만 1,000명)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지역에서 부산으로의 통근도 역시 김해(1만 9,000명), 양산(1만 3,000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 지표를 근거로 한 부산시와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은 양산, 김해, 진해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에서 <그림 8> 및 <표 4>는 부산시와 주변지역의 기능적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존도, 점유율, 통근량을 나타낸 그림과 표다.

이상의 기능적 연계성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부산·울산권으로 설정할 경우 광역권 설정은 <그림 9>와 같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우 경주, 양산, 김해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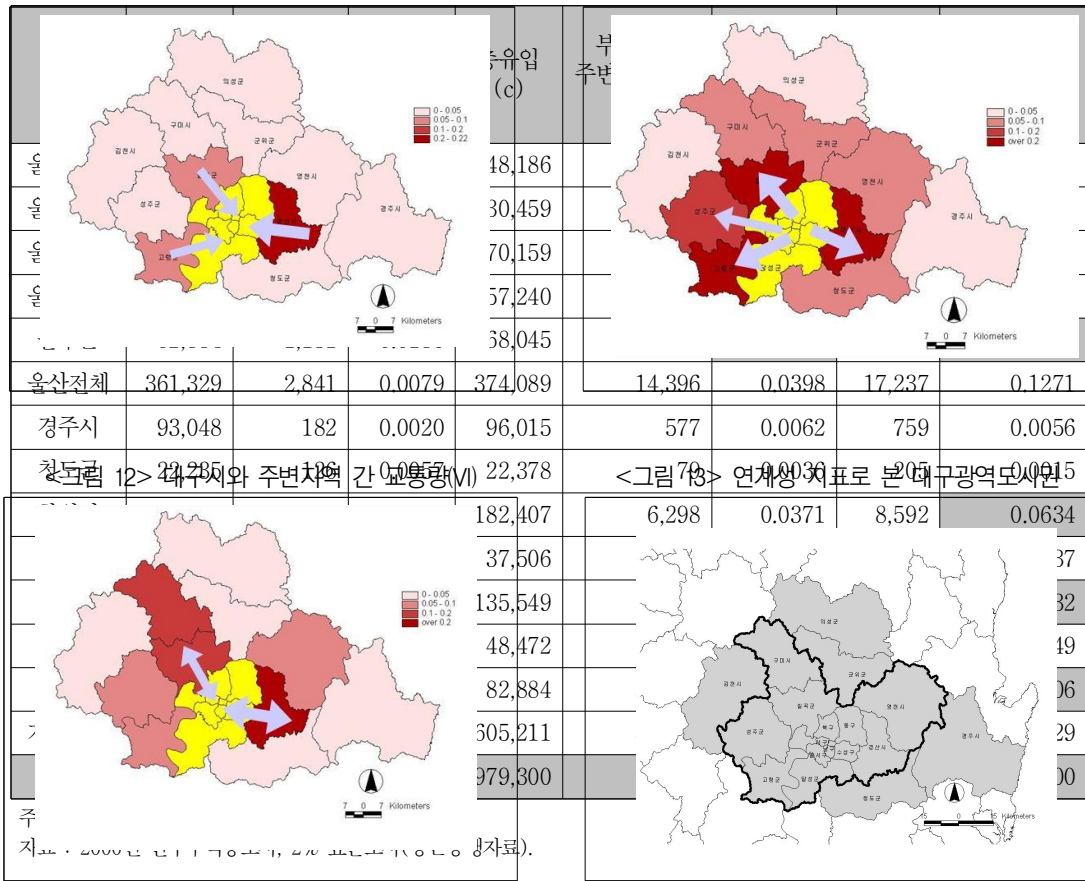
2) 대구 광역도시권 설정

대구광역시를 중심도시로 보고,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직업의존도(JDR)는 경산시가 22%로 가장 높았고,

<그림 9>



<그림 10> 주변지역의 대구 직업 의존도(JDR)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각 기능적 연계 주변지역 직업점유율(JOR)



다음으로 고령군(9.7%), 칠곡군(6.8%)순으로 조사되었다. 대구광역시의 주변지역 직업 점유율(JOR)도 경산시가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칠곡군(28.8%), 고령군(27.6%), 성주군(16.6%)순으로 조사되었다. 통근통행량(VI)의 경우 역시 경산시가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구미시(14.8%), 칠곡군(14.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0>에서 <그림 12> 및 <표 5>는 대구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존도, 점유율, 통근통행량을 나타낸 그림과 표다. 이상의 의존도, 점유율, 통근량(비중)의 3가지 지표 중 두 개 이상

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구광역권으로 설정할 경우, 대구광역권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영천군, 구미군, 성주군 등이 포함된다.

3) 수도권 광역도시권 설정

서울, 인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경우 서울시를 중심도시로 보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주변지역의 중심도시에 대한 직업의존도(JDR)는 과천시가 5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명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남양주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의존도 5%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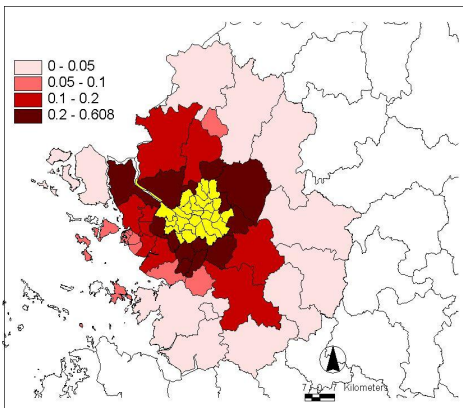
<표 5> 대구시와 주변지역 간 기능적 연계성

지역	총유출 (a)	주변에서 대구로 (b)	의존도 (JDR=b/a)	총유입 (c)	대구에서 주변지역 으로(d)	점유율 (JOR=d/c)	통근량 (e=b+d)	통근량의 비중
구미시	130,421	1,216	0.009	156,518	13,514	0.0863	14,730	0.148
경주시	97,820	442	0.005	95,355	1,780	0.0187	2,222	0.022
경산시	77,128	16,963	0.220	83,191	26,230	0.3153	43,193	0.434
김천시	62,755	329	0.005	61,633	1,219	0.0198	1,548	0.016
영천시	47,674	1,509	0.032	50,385	4,439	0.0881	5,948	0.060
칠곡군	42,471	2,882	0.068	39,206	11,313	0.2886	14,195	0.143
의성군	37,346	110	0.003	39,197	972	0.0248	1,082	0.011
청도군	23,378	615	0.026	24,747	1,812	0.0732	2,427	0.024
군위군	16,358	295	0.018	17,902	1,641	0.0917	1,936	0.019
성주군	24,778	571	0.023	28,478	4,728	0.1660	5,299	0.053
고령군	17,093	1,665	0.097	19,327	5,336	0.2761	7,001	0.070
합계	577,222	26,597	0.046	615,939	72,984	0.1185	99,5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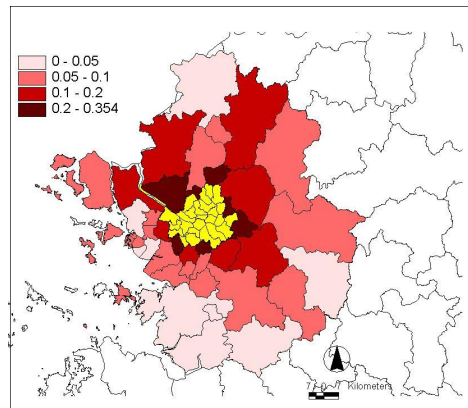
주: 5% 이상을 음영으로 처리하였음.

자료: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조사(통근통행자료).

<그림 14> 주변지역의 서울시 직업의존도(JDR)



<그림 15> 서울시의 주변지역 직업의존도(JOR)



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개의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한편 서울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JOR) 역시

과천시가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리시, 고양시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유율 5%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총 31개의 지역이 선정되었다. 통근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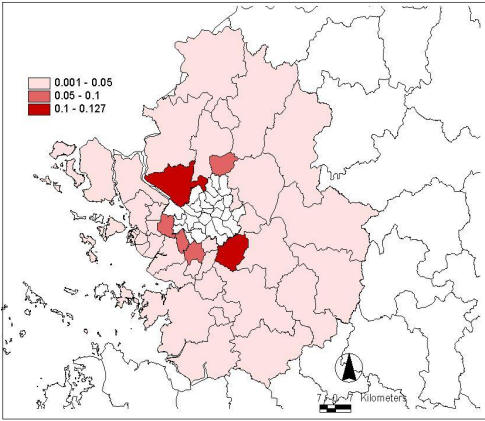
<표 6> 서울과 주변지역 간 지능적 연계성

지역	총유출 (a)	주변에서 서울로(b)	의존도 (JDR=b/a)	총유입 (c)	서울에서 주변으로 (d)	점유율 (JOR=d/c)	통근량 (e=b+d)	통근량 비중
가평군	18,042	906	0.0502	18,525	1,360	0.0734	2,266	0.0017
강화군	27,367	425	0.0155	29,936	1,525	0.0509	1,950	0.0015
계양구	117,846	23,171	0.1966	77,220	3,980	0.0515	27,151	0.0208
고양시	268,778	125,084	0.4654	183,015	40,177	0.2195	165,261	0.1267
과천시	23,175	14,099	0.6084	26,391	9,332	0.3536	23,431	0.0180
광명시	122,378	63,188	0.5163	68,239	15,674	0.2297	78,862	0.0605
광주군	47,893	6,573	0.1372	64,243	8,668	0.1349	15,241	0.0117
구리시	59,704	23,035	0.3858	52,431	13,396	0.2555	36,431	0.0279
군포시	96,471	28,314	0.2935	61,328	6,000	0.0978	34,314	0.0263
김포시	58,117	12,327	0.2121	79,666	15,659	0.1966	27,986	0.0215
남동구	147,415	16,175	0.1097	152,059	6,237	0.0410	22,412	0.0172
남양주시	122,539	43,867	0.3580	82,994	12,409	0.1495	56,276	0.0431
동두천시	26,946	1,998	0.0741	26,172	1,863	0.0712	3,861	0.0030
부천시	283,981	84,540	0.2977	225,101	26,421	0.1174	110,961	0.0851
부평구	195,855	35,201	0.1797	153,594	10,251	0.0667	45,452	0.0348
성남시	342,091	125,240	0.3661	245,592	38,170	0.1554	163,410	0.1253
수원시	355,808	34,784	0.0978	313,645	22,328	0.0712	57,112	0.0438
시흥시	112,462	18,621	0.1656	102,097	7,793	0.0763	26,414	0.0202
안산시	214,368	20,298	0.0947	226,040	18,013	0.0797	38,311	0.0294
안성시	53,047	1,039	0.0196	53,609	2,058	0.0384	3,097	0.0024
안양시	218,171	65,105	0.2984	180,734	23,752	0.1314	88,857	0.0681
양주군	39,946	4,825	0.1208	44,310	3,413	0.0770	8,238	0.0063
양평군	31,969	1,510	0.0472	33,027	1,867	0.0565	3,377	0.0026
여주군	40,682	684	0.0168	41,617	1,303	0.0313	1,987	0.0015
연수구	96,037	7,205	0.0750	46,873	1,638	0.0349	8,843	0.0068
연천군	18,693	408	0.0218	18,893	703	0.0372	1,111	0.0009
오산시	40,638	1,783	0.0439	38,351	1,872	0.0488	3,655	0.0028
용진군	6,865	0	0.0000	8,034	183	0.0228	183	0.0001
용인시	147,780	27,076	0.1832	152,786	14,647	0.0959	41,723	0.0320
의왕시	42,224	11,045	0.2616	25,794	2,113	0.0819	13,158	0.0101
의정부시	131,478	46,931	0.3569	94,440	20,452	0.2166	67,383	0.0517
이천시	68,962	1,831	0.0266	75,428	4,765	0.0632	6,596	0.0051
인천남구	145,088	13,683	0.0943	134,469	7,094	0.0528	20,777	0.0159
인천동구	25,146	2,126	0.0845	32,467	2,296	0.0707	4,422	0.0034
인천서구	123,103	15,061	0.1223	116,307	5,107	0.0439	20,168	0.0155
인천중구	23,871	1,814	0.0760	47,767	3,564	0.0746	5,378	0.0041
파주시	69,223	7,711	0.1114	72,786	7,679	0.1055	15,390	0.0118
평택시	125,230	3,036	0.0242	128,152	3,710	0.0289	6,746	0.0052
포천군	51,398	1,844	0.0359	66,887	8,087	0.1209	9,931	0.0076
하남시	45,702	19,681	0.4306	38,061	12,011	0.3156	31,692	0.0243
화성군	83,661	1,794	0.0214	107,431	2,829	0.0263	4,623	0.0035
합계	4,270,150	914,038	0.2141	3,746,511	390,399	0.1042	1,304,43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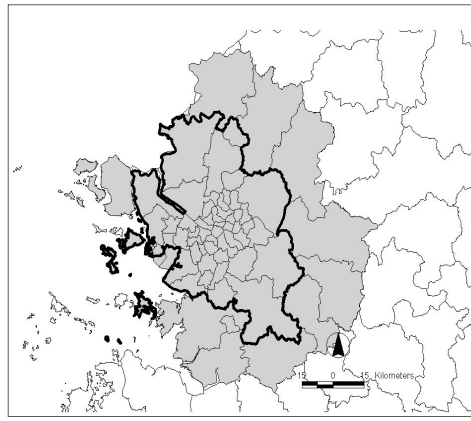
주: 5% 이상을 음영으로 처리하였음.

자료: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2% 표본조사(통근통행자료).

<그림 16> 수도권 통근량(V)



<그림 17> 연계성 지표로 본 수도권 광역도시권



행량의 경우 고양시가 전체의 1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남시(12.5%), 부천시(8.5%), 안양시(6.8%), 광명시(6.1%), 의정부시(5.2%)로 조사되었다. <그림 14>에서 <그림 16>, 그리고 <표 6>은 서울시와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존도, 점유율, 통근통행량을 나타낸 그림과 표다. 이상의 연계성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을 광역권으로 설정할 경우 수도권 광역도시권으로 설정가능한 지역은 <그림 17>과 같다.

2. 권역별 공간 특성 비교

광역도시권별 공간적 특성 비교는 비수도권 내에서의 비교(울산과 부산/대구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교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울산광역도시권은 어느 도시를 중심도시로 보는가에 따라 공간적 범위는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와 울산시 두 대도시를 각각 중심도시로 설정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기존의 계획 및 제도

차원에서 부산 중심의 권역설정과는 달리 울산시를 중심도시로 하여 실증분석하였을 경우, 울산시는 부산 및 경남지역들보다 경주와의 기능적 연계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산, 울산 두 도시를 중심도시로 하여 광역도시권을 설정할 경우 경주가 부산·울산권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울산권역의 주변지역과의 연계 특성은 부산 및 대구권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울산과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 강도는 부산 및 대구를 중심도시로 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도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이는 울산과 부산/대구라는 중심도시 역할 및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도시기능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울산의 경우 광역도시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중심도시 내부에서 직장과 주거지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자족도시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부산/대구의 경우 중심도시의 공간적 영역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직장과 주거지가 상당히 분리되어,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대구

권의 경우 부산/대구(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 점유율(JOR)이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직업의존도(JDR)보다 높은 이유는 도시확장에 따른 중심도시의 직장이 주변지역으로의 이전과 더불어 주변지역이 주로 산업기능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다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적 특성 차이이다. 부산권 및 대구권의 광역도시권과 수도권의 광역도시권을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의 부산권과 대구권의 경우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JOR)이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의존도(JDR)보다 높은 반면,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경우는 주변지역의 중심도시(서울) 직업의존도(JDR)가 중심도시(서울)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JOR)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의 광역도시권별 의존도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의존도의 경우 수도권의 광역도시권

은 약 46%로 높지만, 부산권 및 대구권 등 비수도권은 약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점유율의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권과 대구권이 수도권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내에서의 울산 및 부산/대구의 중심도시기능 차이가 발견되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도 중심도시의 역할 및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도시기능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외연적 확산이 경기도 등 주변지역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주변지역(경기도)의 개발이 주로 주택위주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거기능이 강한 것에 반해 부산권 및 대구권의 주변지역은 신도시개발보다는 산업단지개발로 인해 산업기능의 역할이 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7> 광역도시권별 의존도 점유율의 차이

의존도 (JDR)	부산·울산권		대구권	수도권	점유율 (JOR)	부산·울산권		대구권	수도권
	울산중심	부산중심				울산중심	부산중심		
1	0.0742	0.1929	0.220	0.6084	1	0.0557	0.4716	0.3153	0.3536
2	0.0533	0.1615	0.097	0.5163	2	0.0192	0.3056	0.2885	0.3156
3	0.0292	0.0462	0.068	0.4654	3	0.0178	0.1397	0.2761	0.2297
4	-	-	-	0.4306	4	-	0.0902	0.1660	0.2556
5	-	-	-	0.3858	5	-	-	0.0917	0.2195
6	-	-	-	0.3661	6	-	-	-	0.1966
7	-	-	-	0.3569	7	-	-	-	0.1209
8	-	-	-	0.2984	8	-	-	-	0.1349
9	-	-	-	0.2977	9	-	-	-	0.1314
10	-	-	-	0.2935	10	-	-	-	0.1174
11	-	-	-	0.2616	11	-	-	-	0.1055
평균	0.052	0.1335	0.1283	0.4621	평균	0.0309	0.2518	0.2275	0.2075

주: 각 권역의 전체 의존도 및 점유율보다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평균한 값들임.

추가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경우 주변 지역의 중심도시(서울) 의존도는 점차 강화되고, 그 공간적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현재 서울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 개발이 주로 주택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심도시의 의존도는 계속 강화될 것이고, 특히 수도권 전철의 충청지역 연장 및 경부고속전철의 개통과 같은 교통조건의 개선은 이러한 수도권의 광역도시권의 공간적 영역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광역권 설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능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적용하여 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인 서울, 대구, 부산·울산과 그 주변지역으로 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지역의 선정이유는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공간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부산·울산권과 같이 두 개의 중심도시가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 어느 한 도시만을 중심도시로 하였을 경우 공간적 범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광역도시권별 공간적 연계패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비수도권 내의 울산권과 부산/대구권 간에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비수도권에서 부산, 울산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을 경우 부산·울산권역에는 경주지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울산권과 부산/대구권의 공간적 연

계패턴의 차이는 광역도시화의 진행 정도, 중심도시의 역할 및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 도시기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대구, 부산권 광역도시권 별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경우 주변지역의 중심도시 의존도(JDR)가 중심도시의 주변지역 직업점유율(JOR)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권 및 대구권의 경우 점유율(JOR)이 의존도(JDR)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중심도시(서울)가 주로 직업중심지의 성격이 강하며, 주변지역은 중심도시의 배후 주거지역을 형성하는 것에 따른 것이며,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중심도시(부산, 대구)는 주변지역에 비해 주거의 중심지로 파악되고, 주변지역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고용)의 역할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경우 서울외곽의 신도시개발과 수도권 광역전철의 충청지역으로의 연장은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주변지역의 중심도시(서울) 의존도가 심화되고 공간적 영역을 더욱 확대시켜 수도권과 충청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초광역도시권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도시권역 간 또는 부산/대구와 울산의 권역 간의 연계패턴의 차이는 지역의 활성화 및 기능적 분담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행정권역으로 나누어진 데서 생긴 지역 간 갈등의 심화, 중복적인 전략산업 육성 등의 산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의 부산 및 대구권의 경우 중심도시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심업무기능 및 교육기능으로 특화하고, 주변지역은 산업기능을 강화하

여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 기능차별을 통한 기능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경우 주변지역(외곽지)의 경우 주택개발과 더불어 직장(산업)을 동시에 입지시켜 직·주 근접의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수도권 광역도시권이 초광역도시권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특정기능(국제업무, 비즈니스 등)은 중심도시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건교부. 200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구자분·김재익·전명진. 2003. 통계적 지역구분에 관한 연구. 통계청.
 권용식. 1998. “서울대도시권의 통근패턴 변화(1980~1995)”. 국토계획 제33권 제5호.
 권용우. 2001.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설정”. 국토계획 제36권 제7호.
 권창기·정현욱. 2005. “울산광역권의 기능적 연계성 분석과 도시성장관리 방향”. 울산발전 통권 제8호.
 김용웅. 1999. “광역권 개발의 방향과 집행촉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과제(Working Paper 99-41).
 김인·권용우. 1998. 수도권지역연구-공간인식과 대응정책. 서울대 출판부.
 김재익·정현욱·여창환. 2005. “The Pattern of the Spatial Interdependency beyond Administrative Boundaries: The Case of the Daegu Metropolitan Area, 1990-2000”. 주택연구 제13권 2호.
 김호철·김철수. 2004. “광역계획권 설정지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9권 제4호.
 노경수. 2001. “광주대도시권내 주변교외지역의 광역도시화 분석”. 국토계획 제36권 제3호.
 류제권. 2001. “광주광역도시권의 권역설정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태성. 1998. “광역경제권개발의 논리와 전략연구”. 국토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손승호. 2003. “수도권의 통근통학통행과 지역구조의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송중홍. 1995. “서울대도시권역의 설정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30권 제1호.
 신윤철·이종상. 2003. “서울광역도시권의 계보적 설정”. 국토계획 제37권 제3호.
 이종상. 2000. “통행 O-D표를 이용한 지역 간 상호작용분석”. 국토계획 제35권 제6호.
 이태일. 1982. “서울과 주변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1권.
 전경규. 2000. “광역도시권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2권 제1호.
 최진호·이종열. 1984. “서울근교외지역의 교외화의 성격과 특징”. 국토연구 제3권.
 Adams, S., B.J. VanDrasek and E.G. Phillips. 1999. “Metropolitan area definition in the United States”. *Urban Geography* 20(8) : pp695-726.
 Aguilar, A.G. 2003. “localization, regional development, and mega-city expansion in Latin America: analyzing Mexico City’s peri-urban hinterland”. *Cities* 20(1): pp3-21.
 Chatterjee, S. and G.A. Carlino. 2001. “Aggregate metropolitan employment growth and the deconcentration of metropolitan employ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8 : pp 549-583.
 Dahmann, D.C. 1999. “New approaches to delineating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settlement: geographers drawing the line”. *Urban Geography* 20(8) : pp683-694.
 Firman, T. 1996. “Urban development in Bandung metropolitan region: a transformation to a Desa-Kota region”. *Third World Planning Review* 18(1) : pp1-22.

- 논문 접수일 : 2007. 1. 15
- 심사 시작일 : 2007. 1. 18
- 심사 완료일 : 2007. 2. 2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Role of the Primate City
in a Metropolitan Region in Korea**

Chang-Ki Kwon Senior Research Fellow, Urban Planning Division,
Ulsan Development Institute(Primary Author)

Hyun-Wook Chung Researcher, Urban Planning Division, Ulsan Development Institute

※ Key words : Metropolitan Area, Functional Linkages, Central City, Peripheries,
Urban Characteristics

This paper examines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selected Korean metropolitan regions with special reference on functional linkage between the core city and the periphery. The selected cases consist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Busan-Ulsan Metropolitan Region, and Daegu Metropolitan Region.

The rationale behind such a spatial analysis on the Korean metropolitan region is that the recent change of functional linkage between core and periphery in a metropolitan region is not appropriately taken account into the existing configuration of a metropolitan plan.

More specifically, the periphery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dependent upon the core city in terms of employment, where Seoul plays predominant role in the metropolitan region with regards to employment and other urban activities. Yet, other two core metropolitan cities, Busan and Daegu, in which Job Dependency Rate(JDR) in the periphery is to great extent less than Job Occupancy Rate(JOR) from the core, suffer the los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metropolitan economy, only taking the leading edges in urban service.

